

유란시아서

<< [제 194 편](#) | [부분](#) | [내용](#) | [제 196 편](#) >>

제 195 편

오순절 이후

195:0.1 (2069.1)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결과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데 사도들 대다수의 미래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확정할 만큼 대단했다. **베드로**는 기독교회의 진정한 창시자였다. **바울**은 기독교의 소식을 이방인에게 가져갔고, **그리스인** 신자들은 이를 온 **로마** 제국으로 가져갔다.

195:0.2 (2069.2) 전통에 묶여 있고 사제에게 억눌려 있던 **히브리인**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람은 서로 형제라는 **예수**의 복음이나, 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베드로**와 **바울**이 선포한 것을 (후일에 기독교) 믿지 않았어도, **로마** 제국의 나머지는 생성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서양 문명은 이 시절에 지적(知的) 문명이었고, 전쟁에 지쳐 있고, 모든 기존 종교와 우주 철학에 대하여 철저히 회의를 품었다. **그리스** 문화의 수혜자인 서양 세계의 민족들은 존경받는 전통, 위대한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철학 · 예술 · 문학 면에, 그리고 정치의 발전에서 물려받은 큰 업적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업적이 있었어도 마음에 흡족한 종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몹시 바라던 영적 소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195:0.3 (2069.3) 그러한 인간 사회의 무대에, 기독교가 전파한 말씀에 담겨 있는 **예수**의 가르침이 갑자기 밀어닥쳤다. 이 서양 민족들의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새 체제의 생활이 제시되었다. 이 상황은 더 오래 된 종교 관습, 그리고 세상에 준 **예수**의 말씀의 새로운 기독교화된 해석, 이 둘 사이에 즉시 갈등이 생김을 의미했다. 그러한 갈등은 틀림없이 새것이나 옛것의 결정적 승리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타협을 낳는다. 역사는 그 투쟁이 타협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는 너무 많은 것을 주재념게 포섭하려 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라도 한두 세대 안에 동화(同化)할 수 없었다. 기독교는 **예수**가 사람의 혼에 제시한 것처럼 단순한 영적 호소가 아니었다. 종교 예식, 교육, 마술, 의술, 예술, 문학, 법률, 정부, 도덕, 성(性) 규제, 일부다처제, 그리고 어느 정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기독교는 새 종교가 아니라 — 온 **로마** 제국과 동양 전체가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 새 체제의 인간 사회로서 나타났다. 그러한 허세로서, 기독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사회적 · 도덕적 충돌을 급히 재촉하였다. **예수**의 이상은 **그리스** 철학이 다시 풀이하고 기독교 안에서 사회에 퍼진 바와 같이, 이제 서양 문명의 윤리 · 도덕 · 종교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인류의 전통에 대담하게 도전하였다.

195:0.4 (2069.4) 처음에, 기독교는 오직 낮은 사회 · 경제 계층만 개종시켰다. 그러나 2세기 초가 되자, **그리스 · 로마** 문화의 최상 부분은 이 새 체제의 기독교 신앙, 사는 목적과 존재 목표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에 갈수록 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195:0.5 (2070.1) **유대인**의 기원을 가진 이 새로운 말씀이 자체가 태어난 땅에서 거의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리 급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일류 지성인들을 사로잡았는가? 기독교가 철학적 종교와 신비 종파들에게 승리한 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었다:

195:0.6 (2070.2) 1. 조직. **바울**은 위대한 조직가였고 그 후계자들은 그가 시작한 속도를 유지했다.

195:0.7 (2070.3) 2. 기독교는 철저히 **헬라**화되었다. **히브리** 신학의 정수(精髓)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최선을 담았다.

195:0.8 (2070.4) 3.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새롭고 위대한 이상을 담았고, 이것은 **예수**가 수여한 일생에 대한 반향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말씀이 반영된 것이다.

195:0.9 (2070.5) 4.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미트라**교와 기꺼이 타협해서, **미트라**교 추종자 가운데 상급인 절반이 **안티오크** 종파에 설득되었다.

195:0.10 (2070.6) 5.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와 후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교도와 그렇게 더 타협했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까지도 새 종교에 설득되었다.

195:0.11 (2070.7)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교도의 예식 행사를 받아들이고, 한편 이교도가 **바울** 기독교의 **헬라**화 판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으니까 이교도와 수지 맞는 장사를 했다. **미트라** 종파와 거래한 것보다 그들은 이교도와 더 이익이 남는 협상을 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타협에서도, 기독교인은 **페르시아** 신비교의 상스러운 부도덕과 또한 비난을 받을 수많은 다른 풍습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정복자가 되고도 남았다.

195:0.12 (2070.8) 지혜로웠든 그렇지 않았든, 기독교의 이 초기 지도자들은 **예수**의 많은 개념을 구하고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계획하여 예수의

이상에 상처를 냈고, 그들은 뛰어나게 성공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상처 입은 주(主)의 이상은 아직도 복음 속에 잠자고 있으며, 궁극에 세상에 대하여 온전한 권능을 주장할 것이다.

195:0.13 (2070.9) 이렇게 기독교가 이교화(異敎化)됨으로 옛 체제는 예식 성질을 지닌 많은 하찮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기독교는 다음 이유로 주도권을 얻었다:

195:0.14 (2070.10) 1. 인간의 도덕 면에서 새롭고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부르짖었다.

195:0.15 (2070.11) 2. 새롭고 크게 확대된 **하나님** 개념을 세상에 주었다.

195:0.16 (2070.12) 3. 불멸의 희망은 세상에 인정받는 종교가 보장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195:0.17 (2070.13) 4. **나사렛 예수**를 사람의 갈급한 혼에게 주었다.

195:0.18 (2070.14) **예수**가 가르친 큰 진리 중에서 많은 것이 이 초기의 타협에서 거의 분실되었지만, 이교화된 이 기독교의 종교 안에 아직도 잠자고 있으며, 그 기독교도 또한 **사람의 아들**의 일생과 가르침의 **바울**판 해석이었다. 그리고 미처 이교화되기 전에도 기독교는 먼저 철저히 **헬라**화되었다. 기독교는 **그리스**인에게 많이, 듬뿍 빛을 쬔다. **에집트**에서 온 어느 **그리스**인이 **니케아**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일어서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이 집회에 도전했고, 그래서 그 집회는 **예수**의 수여에 관한 참 진실이 세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빠지도록 **예수**의 성품에 관한 개념을 감히 흐릿하게 만들지 못했다. 이 **그리스**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였고, 이 신자의 웅변과 논리가 아니었다면, **아리우스**의 신조가 승리했을 것이다.

1. 그리스인의 영향

195:1.1 (2071.1) 기독교의 헬라화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아레오파구스^[175] 회의 앞에 서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그 중대한 날에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거기서 **아크로폴리스**의 그늘 아래서, 이 **로마** 시민은 **유대인**의 땅 **갈릴리**에서 기원을 가졌던 새 종교의 자기 해석을 선포했다. **그리스인**의 철학과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이상하게 비슷한 무엇이 있었다.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 이 두 가지가 개인의 등장을 겨냥했다. **그리스인**은 사회적 · 정치적 등장, **예수**는 도덕적 · 영적 등장이 목표였다. **그리스인**은 정치적 자유로 이끄는 지적 자유주의를 가르쳤고, **예수**는 종교적 해방으로 인도하는 영적 자유주의를 가르쳤다. 이 두 관념이 한데 모여 인간의 자유를 위한 새롭고 강력한 헌장이 되었고, 사람의 사회 · 정치 · 영적 해방을 알리는 전조(前兆)가 되었다.

195:1.2 (2071.2) 기독교는 주로 두 가지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경쟁하는 모든 다른 종교를 이겼다:

195:1.3 (2071.3) 1. **그리스**의 지성인은 **유대인**한테서도 새롭고 좋은 관념을 기꺼이 빌렸다.

195:1.4 (2071.4) 2. **바울**과 그 후계자들은 기꺼이, 하지만 날카롭고 현명하게, 타협하는 사람이었다. 신학(神學)을 파는 기민한 상인이었다.

195:1.5 (2071.5) **아데네**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그리스도**이자 십자가에 못박힌 분”을 전했을 때, **그리스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다. 궁금하여 묻고,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영적 진실을 찾고 있었다. **로마인**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항하여 싸웠고, 한편 **그리스인**은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일부로서 당시에 수정된 이 새 종교를 후일에 받아들이도록 **로마인**을 글자 그대로 강제한 것은 **그리스인**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195:1.6 (2071.6) **그리스인**은 아름다움, **유대인**은 거룩함을 존중했지만, 두 민족이 진실을 사랑하였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인**은 종교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 문제 — 사회 · 경제 · 정치 · 철학 문제 — 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토론했다. 거의 아무 **그리스인**도 종교에 그다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조차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은 이 다른 분야의 사상을 소홀히 해왔고, 한편 머리를 종교에 쏟았다. 그들의 종교를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었다. **예수**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러 세기 동안 이 두 민족의 사상(思想)이 뭉쳐서 생긴 산물은 이제 새 체제의 인간 사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새 체제의, 인간의 종교 관념 및 관습에 추진력이 되었다.

195:1.7 (2071.7) **알렉산더**가 근동 세계에 **헬라** 문명을 퍼뜨렸을 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은 이미 서부 지중해의 땅에 침투하였다. 작은 도시 국가에서 사는 한, **그리스인**은 종교와 정치를 잘 처리했으나,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드리아** 해로부터 뻗어서 **인더스** 강까지 **그리스**를 감히 하나의 제국으로 키웠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을 확장하는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행정이나 종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커져 제국이 된 뒤에, 오히려 촌티 나는 신들은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오래된 **유대** 종교의 기독교판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인**은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195:1.8 (2072.1) **헬라** 문화의 제국은 그런 상태로 오래 갈 수 없었다. 제국의 문화적 지배가 계속되었지만, 제국의 행정을 위하여 서방에서 **로마**의 정치적 수완을 얻은 뒤에, 그리고 동방에서 한 종교를 얻은 뒤에야 오래 견디었고, 그 종교의 유일한 **하나님**은 제국의 품위를 갖추었다.

195:1.9 (2072.2) **그리스도** 이후 1세기에, **헬라** 문화는 이미 절정에 이르렀고, 쇠퇴가 시작되었다. 학문이 진보되고 있었지만, 천재(天才)가 줄어들고 있었다. 바로 이때, 기독교에 얼마큼 담겨 있었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구출된 **그리스** 문화와 학문의 일부가 되었다.

195:1.10 (2072.3)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의 문화적 선물을 가지고 동방으로 진격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의 기독교판을 가지고 서방을 공략했다. 그리고 서방 전역에 걸쳐 **그리스** 문화가 지배한 곳에, **헬라화**된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다.

195:1.11 (2072.4) **예수**의 말씀의 동방판은, 그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게 남기는 했어도, 타협하지 않는 **아브너**의 태도를 계속 따랐다. 결코 **헬라화**된 해석판처럼 진보하지 못했고, 궁극에 이슬람 운동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2. 로마인의 영향

195:2.1 (2072.5)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이어받았고, 제비로 뽑는 정치 대신에 대의(代議) 정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로마**가 이상한 언어와 민족에 대하여, 아니 종교에 대해서도, 새로이 관대한 태도를

온 서양 세계로 가져왔으므로, 이 변화는 당장에 기독교에 유리하게 되었다.

195:2.2 (2072.6) **로마**에서 초기의 기독교인 박해 중에 많은 것은 오로지 전도할 때 불행하게도 “나라”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어떤 종교에도 관대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티가 나는 것은 무엇이나 대단히 분개했다. 그래서 대체로 오해 때문에 생긴 이 초기의 박해가 사라졌을 때, 종교의 선전을 위하여 무대가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적 통치에 관심을 가졌고, 예술이나 종교에 거의 아랑곳하지 않았어도 이 두 가지에 특별히 관대하였다.

195:2.3 (2072.7) 동방의 율법은 엄격하고 원칙이 없었다. **그리스**의 율법은 유연하고 예술적이었다. **로마**의 법은 기품이 있고 존경심을 일으켰다. **로마**의 교육은 전례 없는 무딘 충성심을 낳았다. 초기의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헌신하고 숭고하게 몸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정직하고 열심이 있고 이상에 헌신했지만, 그 이름에 마땅한 종교가 없었다. 그들이 **바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인** 선생들이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5:2.4 (2072.8) 이 **로마인**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에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한 견줄 데 없는 정직, 헌신, 굳센 자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데 이상적 토양이었다.

195:2.5 (2072.9)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및 **로마인**이 제도화된 교회에 영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수월했다. **로마인**은 오직 교회가 국가와 경쟁하는 존재로 두려워했을 때, 교회에 대항하여 싸웠다. 민족의 철학이나 토착 문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이어받았고,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자체의 도덕 철학으로 채용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되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새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라는 의미로 볼 때, 그것이 도저히 **로마**의 종교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많은 개인이 정말로 이 모든 국가 종교의 표면 밑으로 파고들었고, 혼을 살리는 영양을 얻으려고, **헬라**화되고 이교화된 기독교에 잠재하는 진실 속에, 숨은 의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은 참말이다.

195:2.6 (2073.1) 금욕주의자, 그리고 금욕주의자의 호소, “자연과 양심”에 대한 건전한 호소는 적어도 지적 의미에서,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더 낮게 준비시켰을 뿐이다. **로마**인은 성품과 훈련으로 보면 법률가였고, 자연 법칙까지도 존경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로마**인은 자연 법칙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헤아렸다. **시세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는 민족은 **바울**의 **헬라**화된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다.

195:2.7 (2073.2) 그래서 이 **로마**화된 **그리스**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철학화하고, 그 관념을 조정하고 그 이상을 체계화하며, 종교 관습을 생활의 기존 흐름에 적응하기를 강요하였다. 이 모두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고, 후일에 신약이 **그리스**어로 기록됨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

195:2.8 (2073.3) **유대**인과 많은 다른 민족과 반대로, **그리스**인은 오랫동안 불멸(不滅), 죽은 뒤에 어떤 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믿어 왔고,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바로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들에게 강하게 호소할 것이 확실했다.

195:2.9 (2073.4)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 승리가 연속된 것은 지중해의 땅을 한 언어와 한 문화를 가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였고, 서양 세계가 유일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유대**교는 이 **하나님**을 마련해 주었지만, **유대**교는 **로마**화된 이 **그리스**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빌로**는 그들의 반대를 줄이려고 얼마큼 거들었지만, 기독교는 그들에게 더 좋은 유일한 **하나님** 개념을 드러냈고, 그들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였다.

3. 로마 제국 밑에서

195:3.1 (2073.5) **로마**의 정치적 지배가 확립된 뒤에, 그리고 기독교가 널리 퍼진 뒤에, 기독교인은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 위대한 종교 개념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스** 및 **로마인**은 그들이 큰 제국을 가졌어도, 제국 숭배와 영적 통일에 적당한 종교 개념으로 쓰일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제국을 받아들였고, 제국은 기독교를 채택했다. **로마인**은 통일된 정치적 통치, **그리스인**은 통일된 문화와 학문, 기독교는 통일된 종교 사상과 관습을 마련해 주었다.

195:3.2 (2073.6) **로마**는 제국을 보편화함으로 민족주의 전통을 극복하였고,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종족과 나라들이, 적어도 명칭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195:3.3 (2073.7) 금욕주의자의 활기 있는 가르침과 구원을 준다는 신비(神秘) 종파의 약속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을 때, 기독교는 **로마**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사심(私心) 없다”는 낱말이 없는 언어를 가진 민족, 영적으로 갈급한 민족에게, 기독교는 신선하게 위로하는 말씀과 사람을 해방하는 힘을 가지고 다가왔다.

195:3.4 (2073.8) 신자들이 봉사하는 생애를 산 태도, 아니 맹렬한 박해가 있던 초기에 믿음을 위하여 신자들이 죽을 때 취한 그 태도조차,

기독교에게 대단히 큰 힘을 주었다.

195:3.5 (2073.9) **그리스도**가 아이들을 사랑한 것에 관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을 때, 아기, 특히 여자 아이를, 내버려 죽게 하는 널리 퍼졌던 관습을 곧 그치게 만들었다.

195:3.6 (2074.1) 기독교 예배의 초기 방식은 대체로 **유대인** 회당에서 이어받고, **미트라교** 의식(儀式)에 따라서 고치고, 거기에 후일에 많은 이교도의 허식(虛飾)을 더했다. 초대 기독교 교회의 뼈대는 **유대교**로 전향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인**들로 구성되었다.

195:3.7 (2074.2)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전 세계 역사에서 좋은 종교가 서양 세계에서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1세기에 기독교는 투쟁과 타협으로 뿌리를 내리고 빨리 퍼지려고 자체를 준비했다. 기독교는 황제를 받아들였다. 나중에 황제는 기독교를 채택했다. 이때는 새 종교가 퍼지기에 좋은 시대였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여행이 보편화되었고, 사상은 어디에 매이지 않았다.

195:3.8 (2074.3) **헬라화**된 기독교를 이름으로만 채택하여 생긴 영적 추진력은 **로마**에 너무 늦게 왔고, 그래서 한창 시작된 도덕의 쇠퇴를 막거나, 이미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퍼지는, 종족의 쇠퇴를 보상하지 못했다. 이 새 종교는 제국 **로마**에게 문화적 필수품이었고, 더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195:3.9 (2074.4) 정부의 일에 개인 참여의 부족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 지나친 온정(溫情) 주의, 무거운 세금과 극심한 징세의 폐단, 무역 적자(赤字)로 인하여 **레반트**로 금(金)이 유출된 것, 유흥의 광란, **로마식** 표준화, 여자 지위의 격하, 노예 제도와 종족의 타락, 육체의 전염병,

영적으로 싹이 없는 지경에 가까이 가기까지 제도화된 국가 교회로부터는 좋은 종교조차 큰 제국을 구원할 수 없었다.

195:3.10 (2074.5)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조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초기의 학교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을 많이 계속 유지했다. **판타에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쳤고, 다음에 계속하여 **나다니엘**을 따라가서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예수**의 이상의 얼마큼은 기독교를 세우는 데 희생되었어도, 공정하게 말하면, 2세기 끝이 되자 **그리스 · 로마** 세계의 거의 모든 위대한 지성인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195:3.11 (2074.6)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도록 이 **로마** 제국은 충분히 오래 지속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인**의 기독교 대신에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로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보았다.

4. 유럽의 암흑 시대

195:4.1 (2074.7) 교회는 사회에 부속된 것이요 정치와 같은 편이니까, 교회는 이른바 **유럽**의 “암흑 시대”의 지적 · 영적 쇠퇴를 함께 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 종교는 더욱 수도원 중심이 되고, 금욕주의화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었다. 영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내내, 잠자고 세속화된 이 종교와 나란히, 연속되는 신비주의의 흐름이 있었고 이것은 비현실에

가깝고 철학적으로 범신(汎神)주의와 비슷한, 환상 같은 영적 체험이었다.

195:4.2 (2074.8) 어둡고 절망에 빠진 이 여러 세기 동안, 종교는 실질적으로, 다시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 되었다. 개인은 교회의 압도적 권한 · 전통 · 명령 앞에서 거의 길을 잃어버렸다. 신의 법정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효력이 있게 하소연하면 신들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 좋게 말해줄 수 있는 화려한 “성자(聖者)” 집단이 창조되어 새로운 영적 위험이 생겼다.

195:4.3 (2075.1) 그러나 기독교는 충분히 사회에 퍼지고 이교화되어서, 다가오는 암흑 시대를 막을 힘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 오랜 기간에 살아남기 위하여 더 준비가 잘 되었다. 기독교는 서양 문명의 긴 밤을 통해서 줄곧 버티었고, 르네상스가 밝아왔을 때 아직도 도덕적 세력으로서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암흑 시대가 지난 뒤에, 기독교의 회복은 그 가르침의 수많은 종파를 낳았고, 이 종파들은 특별한 지성 · 감정 · 영적 부류의 인간에게 적당한 신앙이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여러 기독교 집단, 즉 종교 집단 중에서, 다수가 이 발표문을 작성할 때 아직도 지속한다.

195:4.4 (2075.2)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로 뜻하지 않게 변질시킴으로 생겨난 역사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헬라화**, 이교화(異敎化), 세속화, 제도화, 지적 쇠퇴, 영적 타락을 겪고, 도덕적 겨울잠을 자고, 절멸의 위협을 겪으며, 그 뒤에 회생(回生)하고 분열되며, 최근에 비교적 회복되는 역사를 제시한다. 그러한 족보는 본래부터 활력이 있고 광대한 회복하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바로 이 기독교가 문명을 깨우친 서양 민족들의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지배권을

얻으려 했던 지난날의 투쟁의 특징이었던 그 중대한 여러 위기보다 훨씬 더 불길(不吉)하다.

195:4.5 (2075.3) 종교는 과학적 지성과 유물론적 경향을 가진 새 시대의 도전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 세속의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벌어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예수**의 종교는 궁극에 승리할 것이다.

5. 현대의 문제

195:5.1 (2075.4) 20세기는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가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문명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물질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사람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먼저 하늘에 있는 실체들을 찾는” 의무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195:5.2 (2075.5) 토막토막 자르고, 격리하고,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분석했을 때, 진실은 때때로 사람을 헛갈리게 하고 잘못 인도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진실은, 물질 과학의 사실로서 또는 중간에 있는 예술의 영감(靈感)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영적 현실로서, 통째로 받아들일 때에야 진실 추구자를 바르게 가르친다.

195:5.3 (2075.6) 종교는 사람에게 그의 신다운 영원한 운명을 계시하는 것이다. 종교는 순전히 몸소 겪는 영적 체험이며, 다음과 같이, 언제까지나 사람의 다른 높은 형태의 생각과 구별되어야 한다:

195:5.4 (2075.7) 1. 물질적 현실인 사물에 대한, 사람의 논리적 태도.

195:5.5 (2075.8) 2. 추한 것과 반대인 아름다움을 사람이 미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195:5.6 (2075.9) 3. 사람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의무를 윤리적으로 인식하는 것.

195:5.7 (2075.10) 4. 인간의 도덕성을 느끼는, 사람의 감각조차 그 자체로서 그것만으로, 종교는 아니다.

195:5.8 (2075.11) 종교는 우주에서 믿음 · 신뢰 · 확신을 요구하는 가치를 찾아내도록 고안되어 있고, 종교는 결국 예배(禮拜)가 된다. 지성이 발견한 상대적 가치와 반대로, 종교는 혼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러한 초인간적 통찰력은 오로지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195:5.9 (2075.12) 중력(重力)이 없는 태양계처럼, 영적 실체에 근거를 둔 도덕이 없이 사회의 체계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없다.

195:5.10 (2076.1) 육체를 입고서 잠시 사는 일생에, 호기심을 채우거나 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잠재 모험심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라. 참아라! 값싸고 더러운 모험으로 멋대로 돌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너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정열에 고삐를 쥐어라. 차분히 있고, 진보하는 모험과 가슴 떨리는 발견이 가득한 생애, 끝없는 생애가 장엄하게 펼쳐지기를 기다려라.

195:5.11 (2076.2) 사람의 기원(起源)이 어디 있는가 혼란에 빠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못 보고 놓치지 말라. **예수**가 어린아이들조차 사랑했다는 것, 인격이 큰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라.

195:5.12 (2076.3) 세상을 볼 때, 너희가 보는 악한 검은 조각들은 궁극에 선한 하얀 배경과 대조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단지,

까만 악의 배경에 초라하게 보이는, 하얀 선(善)의 조각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195:5.13 (2076.4) 널리 퍼뜨리고 선포할 좋은 진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째서 세상에 악이 사실로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악(惡)에 골몰해야 하는가? 진실의 아름다운 영적 가치는 악의 현상보다도 더욱 유쾌하고 사람의 정신을 높여준다.

195:5.14 (2076.5) 현대 과학이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종교에서 **예수**는 체험 방법을 주장하고 따랐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의무에 충성하고, 신의 선함을 예배함으로 이 혼의 통찰력에 가까이 간다. 그러나 이 모든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사랑은 진정한 통찰력으로 이끄는 참된 안내자이다.

6. 유물론

195:6.1 (2076.6) 과학자는 뜻하지 않게 인류를 유물론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영원한 도덕 은행(銀行)에서 경솔하게 지불 청구를 시작했지만, 이 인간 체험의 은행은 광대한 영적 재산을 가졌고, 그 은행에 대한 지불 청구를 들어줄 수 있다. 오로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인류의 영적 자산이 충분히 있는가 공포에 빠진다. 유물론이자 세속적인 공포가 끝날 때,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적 은행은 “**예수**의 이름으로” 꺼내 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도덕적 보장을 줄 것이다.

195:6.2 (2076.7) 유물론과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명백한 갈등이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다가오는 시대에, 주의 가르침이 완전히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참 종교는 과학과 어떤 논쟁에도 말려들 수 없고, 어떤 면에서도 물질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다만 과학에 무관심하지만, 과학에 동정하며, 한편 그 과학자에게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

195:6.3 (2076.8) 지식만 추구하는 것은 그에 따른 지혜로운 해석 없이, 그리고 종교적 체험을 보는 영적 통찰력 없이, 궁극에 비관(悲觀)과 인간의 절망으로 이끈다. 알팍한 지식은 참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195:6.4 (2076.9) 이 책을 기록할 때, 유물론 시대 최악의 고비는 지나갔다. 사물을 더 이해하는 시절이 이미 밝아오고 있다. 과학 세계의 상급 지성인은 철학 면에서 이제 더 전적으로 유물론을 지지하지 않지만,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옛 가르침의 결과로서 아직도 그 방향으로 쏠린다. 그러나 이 물리적 현실주의 시대는 땅에서 사람의 일생에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다. 현대 과학은 참 종교 —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풀이된 **예수**의 가르침 — 을 다치지 않고 두었다. 과학이 이룩한 업적은, 인생을 그릇되게 풀이한 유치한 환상을 깨뜨렸을 뿐이다.

195:6.5 (2077.1) 땅에서 사는 인생에 관하여 말하면, 과학은 양적(量的) 체험이요,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을 다루고 종교는 기원 · 가치 · 목표를 다룬다. 물리적 현상의 설명으로서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 것은 궁극의 것을 모른다는 고백이요, 끝에는 과학자를 시초의 큰 원인 —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 — 까지 곧장 거슬러 올라가도록 이끌 뿐이다.

195:6.6 (2077.2) 기적이 일어나던 시대에서 기계 시대로 맹렬히 방향을 바꾼 것은 사람을 온통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주를

기계로 보는 거짓 철학의 영리함과 교묘함은 바로 그들의 기계론적 주장이 거짓임을 나타낸다. 한 유물론자의 지성이 보인 숙명론(宿命論)의 영리함은 우주가 사물을 못 보고 목적이 없는 에너지 현상이라는 주장이 그릇됨을 언제까지나 증명한다.

195:6.7 (2077.3) 교육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들의 기계론적 자연주의,^[176] 거리에 있는 보통 사람의 지각 없는 세속주의, 이 두 가지는 순전히 사물에 흥미를 가진다. 이런 사상은 영적 성질을 가진 어떤 진정한 가치도, 인정(認定)도, 만족감도 낳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과 희망과 영원한 확신이 빠져 있다. 현대 생활에서 하나의 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영적 명상과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5:6.8 (2077.4) 유물론은 사람을 혼이 없는 자동 인형(人形)으로 격하시키고, 단지 낭만이 없는 기계론적 우주의 수학 공식에서 무력한 자리를 찾는 산술 기호로 만든다. 그러나 큰 수학자가 없이 이 모든 광대한 수학적 우주가 어디에서 오는가? 과학은 물질의 보존에 관하여 상세히 논할지 모르지만, 종교는 사람의 혼이 보존되는 것을 입증한다 — 종교는 사람이 영적 실체와 영원한 가치를 체험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195:6.9 (2077.5) 오늘날 유물론을 믿는 사회학자는 한 공동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쓰고, 발견한 그대로 사람들을 버려둔다. 1천 9백 년 전에,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 체험에 영적으로 기여한 일생을 바친 **예수**를 살펴보고, 다음에 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엎었다.

195:6.10 (2077.6) 그러나 중세(中世)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현대인을 부르려고 애쓸 때, 종교 지도자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새로운 최신 표어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나

어떤 다른 정치적 만병 통치약도 영적 진보를 대신할 수 없다. 거짓 종교는 현실에서 도피를 의미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복음은 영적 진보가 있는 영원한 현실의 바로 그 문앞까지 필사 인간을 데려갔다.

195:6.11 (2077.7) 지성이 물질에서 “숫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우주가 단지 기계 작용이고 지성이 물질에 같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관측된 현상에 대하여 결코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 · 아름다움 · 선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 본래부터 있지 않다. 기계는 진실을 알기는커녕, 아는 능력도 없고, 올바름을 간절히 찾고 선을 소중히 간직할 능력이 없다.

195:6.12 (2077.8) 과학은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헤아리는 과학자의 지성은 당장에 물질을 초월한다. 물질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비를 사랑하거나 영적 실체를 기뻐할 수도 없다. 영적 깨우침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체험에 뿌리를 둔 도덕적 확신은 물리적 관측에 기초를 둔 수학적 추론과 똑같이 실재하고 확실하지만, 한층 높은, 다른 수준에서 그렇다.

195:6.13 (2077.9)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물질 우주에 대하여 얼마큼 획일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인격은커녕, 개성(個性)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195:6.14 (2077.10) 온 우주의 중심에서 **파라다이스**의 절대적 기계 작용이 있는 사실은, 둘째 근원 중심의 조건 없는 의지가 계신 앞에서, 결정 요인이 우주에서 혼자만 정하는 법칙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처리한다. 물질 작용이 있기는 해도, 그것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기계 작용이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결정(決定)하는 작용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195:6.15 (2078.1) 지성과 영, 이 둘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유한한 우주는 궁극에 획일적이고 결정론(決定論)대로 될 것이다. 우주 지성의 영향은 물질 세계 속에도 항상 자발성을 주입한다.

195:6.16 (2078.2) 어떤 존재 영역에서도 자유, 곧 독창성은 영적 영향과 우주 지성이 통제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체험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정도에, 정비례하여 커진다. 그래서 일단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찾았다는 확고한 증명이다.

195:6.17 (2078.3) 진실 · 아름다움 · 선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에 자유와 획일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발견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물건은 실재하며, 획일적인 듯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물로서 규명될 수 없었다.

7. 유물론의 취약성

195:7.1 (2078.4)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계론적 우주론처럼 그렇게 허약한 이론이 참된 종교를 몸소 체험하는 광대한 영적 자원을 그에게서 빼앗도록 버려두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코 사실은 진정한 영적 믿음과 언쟁하지 않지만, 이론은 그럴 수도 있다. 과학은 종교적 신앙 — 영적 실체와 신성한 가치를 믿는 인간의 신앙 — 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미신의 말소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195:7.2 (2078.5) 종교가 사람에게 영적 면에서 해주는 것을, 물질 면에서 과학이 사람에게 해야 한다: 인생을 보는 시야를 늘이고 인격을 키우는

일이다. 참된 과학은 참된 종교와 오래 다룰 일이 없다. “과학적 방법”은 다만 물질적 모험과 물리적 성취를 재는 지적 척도일 뿐이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온통 지적 성질을 가졌으므로, 과학적 방법은 영적 실체와 종교적 체험의 평가에 도무지 쓸모가 없다.

195:7.3 (2078.6) 현대 기계론자의 모순은 이렇다: 이것이 단지 물질적 우주이고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기계인 것을 전혀 알아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계 인간은 그러한 물질 우주가 존재하는 사실을 도무지 의식(意識)하지 못할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이 낳은 유물론적 낙심과 절망은 과학자의 지성에 영이 깃드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런 과학자의 바로 그 초물질 통찰력이, 잘못되고 스스로 모순되는 유물론적 우주 개념들을 만들어냈다.

195:7.4 (2078.7) 영원하고 무한한 **파라다이스** 가치, 곧 진실 · 아름다움 · 선의 가치는 여러 시공 우주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영적 가치를 찾아내고 헤아리는 데는 영에게서 태어난 필사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요구한다.

195:7.5 (2078.8) 영적으로 진보하는 실체와 가치는 “심리적 예상” — 단지 물질 지성의 미화된 몽상 — 이 아니다. 그러한 실체와 가치는 깃드는 **조절자**, 사람의 지성 속에 사는 **하나님** 영의 영적 예측이다. 희미하게 얼핏 본 “상대성”의 발견으로 집적거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 무한하다는 너희의 개념이 흔들리지 말지어다. 자아 표현의 필요에 관하여 너희가 온갖 간청을 드릴 때, 조절자의 표현, 진정하고 더 나은 자아 표현을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195:7.6 (2079.1) 이것이 겨우 물질적 우주라면, 물질 인간은 결코 그렇게 순전한 물질적 존재를 가지는 기계적 인품 개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우주에 대한 바로 이 기계론 개념은 그 자체로서 지성의

비물질 현상이며, 아무리 철저히 물질에 조건을 받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듯 보여도, 모든 지성은 비물질 기원을 가진다.

195:7.7 (2079.2) 필사 인간이 가진 얼마큼 진화된 정신 작용은 일관성이나 지혜를 지나치게 부여받지 않는다. 사람의 자만은 가끔 이성(理性)을 뛰어넘고 자신의 논리를 벗어난다.

195:7.8 (2079.3) 가장 비관적인 유물론자의 바로 그 비관주의는, 그 자체로서 저절로, 비관주의자가 보는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이 아닌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 두 가지가 사실만 아니라 가치를 의식하는 지성 속에 생기는 개념적 반응이다. 우주가 참으로 유물론자가 보는 바와 같은 우주라면, 다음에 인간 기계인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도무지 의식하여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에게서 태어난 지성 안에서 가치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는,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는 사실과 우주 작용이 기계론에 따른 현상인 것을 사람이 도무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성질이나 가치를 의식할 수 없다.

195:7.9 (2079.4)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은 과학적일 수 없으니, 이는 과학이 오로지 물질과 사실만 인식하고 다루기 때문이다. 철학은 불가피하게 과학을 초월한다. 사람은 자연 속에 있는 물질적 사실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지성의 통제 속성과 영의 창조 성질을 나타내니까, 자연의 물질 수준을 뛰어넘는다.

195:7.10 (2079.5) 사람이 기계론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능과 도덕 면에서 자살하려고 쓸데없이 노력하는 비참한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195:7.11 (2079.6) 우주가 단지 물질이고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이런 우주의 기계 작용을 가정하는 과학자에게 용기를 줄 아무런 과학이 없을 것이다. 기계는 자체를 재거나 분류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오로지

기계를 초월하는 지위를 가진 어떤 개체가 그러한 과학적 작품을 만들 수 있다.

195:7.12 (2079.7) 우주 실체가 겨우 하나의 광대한 기계라면, 다음에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평가로부터 통찰력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주 바깥에, 우주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195:7.13 (2079.8) 사람이 겨우 기계라면, 무슨 기법(技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겨우 기계라는 것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안다고 주장하는가? 사람이 스스로 의식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체험은 결코 단순한 기계의 한 속성이 아니다. 자의식(自意識)하고 기계론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기계론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답이다.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자의식하는 기계론자가 결코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전에, 먼저 도덕을 아는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참말이다.

195:7.14 (2079.9) 유물론의 바로 그 주장은 그러한 독단을 주제넘게 부르짖는 지성이 초물질 의식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기계 작용은 나빠질지 모르지만, 결코 진보할 수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을 꾸거나, 뜻을 품거나 무엇을 이상으로 만들거나, 진실을 간절히 찾거나, 올바름을 목마르게 찾지 않는다. 기계는 다른 기계들에게 봉사하고, 영원히 진보할 목표로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숭고한 과제를 택하려고 정열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자극하지 않는다. 기계는 결코 지능도 감정도, 미학도 윤리도, 도덕도 영적 성향도 없다.

195:7.15 (2079.10) 예술은 사람이 기계론적 존재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불멸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예술은 필사자의

상물질이요, 물질 인간과 영적 인간 사이에 있는 분야이다. 시(詩)는 물질적 현실을 벗어나 영적 가치들을 향하려는 노력이다.

195:7.16 (2080.1) 높은 문명에서는 예술이 과학을 인간답게 만들고, 한편 다음에 참 종교 — 영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보는 통찰력 — 이 예술을 영적으로 변화시킨다. 예술은 실체에 대한 인간의 시공 평가를 나타낸다. 종교는 우주의 가치를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영적으로 올라가고 커지면서 영원히 진보함을 의미한다. 오직 시간 속에 실체의 그림자로서 영원이 비쳐주는 신다운 본보기, 영의 표준을 예술이 못 볼 때에야 시간 세계의 예술이 위험하다. 참된 예술은 인생에서 물질인 것을 효과 있게 조종한다. 종교는 인생에서 물질적 사실을 고상하게 변화시키고, 예술의 영적 평가를 그치지 않는다.

195:7.17 (2080.2) 자동 인형(人形)이 자동 기계론이라는 철학을 상상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다른 동료 자동 인형에 대하여 그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가!

195:7.18 (2080.3) 과학자를 마땅히 인식하지 않으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가치가 없다. 예술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예술에 대한 어떤 평가도 진정하지 않다. 도덕가를 제외하면 도덕률에 대한 어떤 평가도 가치가 없다. 철학자를 무시하면 어떤 철학의 인식도 교훈이 되지 않고, 신자의 실제 체험이 없이 종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신자는 바로 이 체험 속에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알려고 애쓴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는 스스로 계시는 이, 그 우주를 만들고 쉬지 않고 관리하는 무한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는 의미가 없다.

195:7.19 (2080.4) 기계론자 — 인본주의자 — 는 물질의 흐름과 함께
떠내려가는 성향이 있다. 유심론자(唯心論者)와 심령주의자는 에너지
흐름의 과정, 겉보기에 순전히 물질적 과정을 수정하려고 지능과
활력을 가지고 감히 노를 젓는다.

195:7.20 (2080.5) 과학은 머리의 계산으로 살며, 음악은 감정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자**의 영원한 상급 멜로디를 측정하는 것과
시공에서 조화를 이룬, 혼의 영적 리듬이다. 종교적 체험은 인생에서
참으로 수학을 초월하는 무엇이다.

195:7.21 (2080.6) 언어에서 **알파벳**은 유물론의 기계 장치를 대표하며, 한편
천 가지 생각, 위대한 관념, 그리고 — 사랑과 미움, 비겁과 용기에 관한
— 고귀한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낱말은, 물질 법칙과 영적
법칙이 정의한 규모 안에서 정신이 연출한 것을 묘사하며, 그 연출은
인격 의지의 주장의 안내를 받고, 본래부터 주어진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195:7.22 (2080.7) 우주는 과학자가 발견하고 과학으로 여기게 되는 법칙,
기계 작용, 불변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주는 이렇게 우주
현상을 지켜보고, 우주에서 물질 측면의 기계적 단계에 본래 있는
수학적 사실을 분류하는 과학자, 호기심 있고 생각에 잠기고, 선택하고
창조하며 통합하고 구별하는 과학자와 같다. 우주는 예술가의 작품과
비슷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영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물질적
사물의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예술가, 힘을 기울이고, 꿈을 꾸고,
큰 뜻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술가와 같다.

195:7.23 (2080.8)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진,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의 현실을 깨닫는다.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물질 존재와 영적 해방 사이에 일시적 상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실천하는 자가 영원히 진보하면서 마주치게 될 영 현실과 신성한 가치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8. 세속적 전체주의

195:8.1 (2081.1) 그러나 사람이 유물론과 기계론을 대체로 정복한 뒤에도, 20세기 세속주의의^[177] 지독한 영향은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영적 체험을 여전히 망칠 것이다.

195:8.2 (2081.2) 두 가지 세계적 영향이 현대의 세속주의를 조장하였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른바 과학 — 무신론적 과학 — 의 태도, 편협하고 신을 믿지 않는 태도였다. 현대 세속주의의 어머니는 중세의 전체주의적 기독교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기독교회가 서양 문명을 거의 완전히 지배한 것에 대한 반항이 커짐으로 비롯되었다.

195:8.3 (2081.3) 이 계시(啓示)가 있을 때, 유럽과 아메리카의 생활에서 지배하는 지적 · 철학적 풍토는 명백히 세속적이다 — 인본주의이다. 3백 년 동안 서양 사상은 차츰차츰 세속화되었다. 종교는 갈수록 더 이름만의 영향이 되었고, 대체로 예식을 치르는 행사였다. 서양 문명에서 기독교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눈치채지 못하면서 실제로 세속주의자이다.

195:8.4 (2081.4) 전체주의적 교회의 지배, 사람을 시들게 하는 손아귀에서, 서양 민족의 생각과 생활을 해방하는 데는 큰 힘, 막강한 영향력이 필요했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통제하는 사슬을 깨뜨려버렸고, 이제 다음 차례에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 위에 새롭고 신을 모르는 종류의 지배력을 굳히려고 위협한다. 전제 및 독재 정치를 행하는 국가는

과학적 유물론과 철학적 세속주의에서 직접 생긴 산물이다. 제도화된 교회의 압제에서 사람을 해방하자마자, 세속주의는 사람을 전체주의 국가에 사슬에 묶인 노예로 팔아버린다. 세속주의는 사람을 교회에 예속된 처지에서 풀어주고서, 정치·경제적 노예가 되는 처지로 팔아 넘길 뿐이다.

195:8.5 (2081.5)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주의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無視)한다. 적어도 이것이 초기의 태도였다. 한때는 종교의 전체주의 속박에 항거했던 세속주의가 최근에 더욱 호전적 태도를 갖추었고 그런 종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20세기의 세속주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인간 사회에서 신이 없는 이 철학은 오로지 불안, 적의(敵意), 불행, 전쟁, 세계적 재난으로 이끌 뿐이다.

195:8.6 (2081.6) 세속주의는 결코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귀담아 듣거라! 교회의 전체주의에 대하여, 세속적 반항을 통해서 얻은 유익한 이점을 빨리 던져버리지 말라. 서양 문명은 오늘날 세속주의로 저항한 결과로서 많은 자유와 만족을 누린다. 세속주의가 저지른 큰 잘못은 이것이다: 종교적 권한이 거의 통째로 생활을 통제하는 데 항거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폭정에서 해방을 얻은 뒤에, 세속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에게, 때때로 말없이, 때때로 드러내놓고, 반란을 시작하였다.

195:8.7 (2081.7) **아메리카**의 산업주의에 나타난 놀라운 창조성, 그리고 서양 문명에서 전례 없던 물질적 진보는 세속주의의 반란(反亂) 덕분이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반란이 너무 지나치고 **하나님**과 참

종교를 못 보고 놓쳤기 때문에, 뒤이어 또한 기대하지 않던 세계 전쟁과 국제적 불안이라는 수확을 거두었다.

195:8.8 (2081.8) 현대의 세속주의 반란이 가져온 축복, 곧 관용, 사회 봉사, 민주 정치, 시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자는 과학을 촉진하고 교육을 향상하기 위하여 참 종교를 적대할 필요가 없었다.

195:8.9 (2082.1) 그러나 세속주의는 생활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에 얻은 이 모든 이익을 낳은 유일한 부모는 아니다. 20세기에 얻은 이익 뒤에는 과학과 세속주의만 아니라, 또한 인식되지 않고 인정 받지 않은, **나사렛 예수**의 일생(一生)과 가르침의 영적 작용이 있다.

195:8.10 (2082.2) **하나님** 없이, 종교가 없이, 과학적 세속주의는 결코 그 세력들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경쟁하는 이권(利權)

· 종족 · 민족주의를 조화시킬 수 없다. 이 세속주의적 인간 사회는 비할 데 없는 물질적 업적을 이루었어도,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적대주의가 이렇게 붕괴하는 데 저항하는 주요 응집 세력은 민족주의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세계 평화에 으뜸가는 장벽이다.

195:8.11 (2082.3) 세속주의가 본래부터 가진 약점은 세속주의가 정치와 권력을 위하여 윤리와 종교를 버리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서 사람의 형제 정신을 이룩할 수 없다.

195:8.12 (2082.4) 세속주의 방향의 사회적 · 정치적 낙관은 망상(妄想)이다.

하나님 없이는 자유와 해방도, 재산과 재물도, 평화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195:8.13 (2082.5) 과학 · 교육 · 산업 · 사회의 완벽한 세속화는 오직 재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세기의 처음 3분의 1 동안에 **유란시아**인들은 그때까지 기독교 시대를 통틀어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인간을 죽였다.

이것은 겨우 유물론과 세속주의로부터 얻는 끔찍한 수확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더 끔찍한 파괴가 다가올 것이다.

9. 기독교의 문제

195:9.1 (2082.6) 너희의 영적 유산(遺産)의 가치, 여러 세기를 통해서 유물론과 세속 시대의 황폐한 시절에 이르기까지 흘러 내려온 진실의 흐름을 간과하지 말라. 지난 시절의 미신 같은 교리들을 떨어버리려고 온갖 값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는 영원한 진실을 단단히 붙들도록 하여라. 그러나 참을성을 가져라! 미신에 저항하는 현재의 반란이 끝났을 때, **예수**의 복음에 담긴 진실은 새롭고 더 나은 길을 비추려고 영화롭게 지속할 것이다.

195:9.2 (2082.7) 그러나 이교(異敎)처럼 변하고 사회화된 기독교는 때문지 않은 **예수**의 가르침과 새로이 접촉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땅에서 사신 주의 일생을 보는 새로운 통찰력이 모자라서 시들고 있다. **예수**의 종교를 새로이 더 충만히 계시하는 것은 유물론적 세속주의 제국을 정복하고, 기계론적 자연주의의 세계 지배를 뒤엎을 운명을 가지고 있다. **유란시아**는 사회를 다시 조정하고, 도덕적 각성과 영적 깨우침이 있는 가장 놀랍고 황홀한 한 시대에 이르는 고비에서 지금 부르르 떨고 있다.

195:9.3 (2082.8) **예수**의 가르침은, 크게 수정되기는 했어도, 태어날 때의 신비 종파, 암흑 시대의 무지와 미신(迷信)을 겪고 살아남았고, 지금도 20세기의 유물론 · 기계론 · 세속주의를 천천히 이기고 있다. 큰

시험이 있고 패배할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절은 언제나 큰 계시가 내리는 시절이다.

195:9.4 (2082.9) 종교는 새로운 지도자, 오로지 **예수**와 그의 견줄 데 없는 가르침에만 감히 의존할 영적인 남녀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사회 및 물질 문제에 계속 바쁘면서 영적 사명을 오랫동안 소홀히 하면, 영적 (靈的) 부활은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순전히 몸을 바칠 선생,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새 선생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음에 영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사회 · 도덕 · 경제 · 정치 면에서 세계의 재조직에 필요한 지도력과 영감을 재빨리 공급할 것이다.

195:9.5 (2083.1) 사실과 모순되고, 가장 높은 진실 · 아름다움 · 선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종교를 현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고 때묻은 현대 기독교의 참된 최초의 기초(基礎) — **예수**의 참 일생과 가르침 — 을 다시 발견할 때가 왔다.

195:9.6 (2083.2) 원시인은 미신으로 종교적 두려움에 매인 인생을 살았다. 현대의 개화된 사람들은 강한 종교적 확신에 지배되는 생각을 두려워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에 불들려 있기를 언제나 두려워했다. 힘세고 감동시키는 종교가 지배하려고 위협할 때, 그는 변함없이 이를 합리화하고 전통으로 만들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며, 이렇게 종교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계시된 종교조차도 그러한 과정으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된다. 현대의 총명한 남녀는 **예수**의 종교가 그들에게 — 또 그들과 함께 —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피한다. 모든 그러한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예수**의 종교는, 정말로, 그 신자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며,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데 일생을 바치라고

요청하고, 사는 에너지를 사람의 형제 정신을 위하여 사심 없이 봉사하는 데 거룩히 바칠 것을 요구한다.

195:9.7 (2083.3) 이기적인 남녀는, 필사 인간에게 일찍이 제공된 가장 큰 영적 보물을 위해서도, 단지 그런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 어리석고 사람을 속이는 이기심(利己心)의 추구에 뒤따르는 슬픈 실망에 사람이 충분히 환멸을 느꼈을 때, 형식이 된 종교가 열매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야, 하늘나라 복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종교로 향할 생각을 진심으로 가질 것이다.

195:9.8 (2083.4) 세상은 직접 체험하는 종교가 더욱 필요하다. 기독교 — 20세기에 최선의 종교 — 조차 **예수**에 관한 종교일 뿐 아니라, 대체로 사람이 남의 손을 빌려서 맛보는 종교이다. 사람들은 인정된 종교 선생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그 종교를 통째로 삼킨다. 땅에서 정말로 산 그대로 **예수**를 보고, 생명을 주는 그의 가르침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채로 알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큰 깨우침을 맛볼 것인가!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는 말씀은, 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기쁨에 떨게 만들 수 없고, 교리(敎理)의 말씀도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아는 체험처럼 사람의 혼에 영감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기대하는 믿음은, 저 건너 여러 세상에 신성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영적 현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사람의 혼 속에 희망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을 것이다.

195:9.9 (2083.5) 기독교는 인간의 욕심, 전쟁의 미친 짓, 권력을 향한 욕심이 도전하는 앞에서 감히 이상(理想)을 낮춰 버렸다. 그러나 **예수**의 종교는 때묻지 않고 초월적인 영적 권유로 서 있으며, 사람의 힘이 자라기까지, 동물로서 진화한 이 모든 유물을 딛고 일어서라고, 은혜로 참된 인간 운명의 도덕적 높이까지 이르라고 소리친다.

195:9.10 (2083.6) 기독교는 형식 치중, 지나친 조직, 지성의 중시, 그리고 다른 비영적 경향 때문에 천천히 죽을 위협을 받는다. 현대의 기독교회는 **예수**가 인류의 뒤잇는 세대를 계속 영적으로 변화시키라고 임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박력 있는 신자들의 단체가 아니다.

195:9.11 (2083.7) 이른바 기독교는 종교적 관념과 관습만 아니라 사회 및 문화 운동이 되어 버렸다. 현대 기독교의 흐름은 여러 고대(古代) 이교도의 늪과 많은 야만인의 수렁에서 물을 받고 있다. 순전히 그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높은 **갈릴리** 고원만 아니라, 많은 옛 문화의 분수령이 이 현대 문화의 흐름에 물을 주고 있다.

10. 앞날

195:10.1 (2084.1) 기독교는 정말로 이 세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이다. 세상은 주를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필사자, 영에게서 태어난 필사자의 체험 속에서, 다시 땅에서 사는 **예수**를 구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시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익하다.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대 문화는 **예수**의 일생의 새로운 계시(啓示)로 영적 세례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주는 복음을 새로 이해함으로 빛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높이 들어올려질 때, **예수**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복자보다 더한 것, 아니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낮게 살아가는, 넘쳐 흐르는 근원까지 되어야 한다.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을 발견함으로 종교가 신성하게 될 때까지, 종교는 상급의 인본주의일 뿐이다.

195:10.2 (2084.2) 땅에서 **예수**가 산 일생의 아름다움과 숭고함, 그 인간성과 신성(神性), 단순함과 독특함은 사람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랍고 마음을 끄는 그림을 제시한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라도, 사람 모습을 입은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적 자신 수여로부터, 감히 영적으로 사람을 묶어 놓는 신조(信條)를 만들거나 신학 체계를 지어내지 못하게 효과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우주는 한 필사 인간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정신은 시간의 물질적 장애를 이기고, 물리적 기원을 가진 사실을 극복했다.

195:10.3 (2084.3) 항상 기억하라 —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우주의 최종에 이르는 신성한 운명을 얻는 체험, 영원한 성격 체험을 완전히 마침내 성취하는 데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195:10.4 (2084.4)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 계신, 사랑의 영이라는 선언 다음으로, **예수**가 일찍이 말스민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다.

195:10.5 (2084.5) 주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제로 또는 의무나 관습으로 처음 십리를^[178]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봉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헌신적 태도로 십리를 더 가는 것이며, 이것은 사랑으로 형제를 붙잡고 필사 존재에서 상급의 신성한 목표를 향하여 영적 안내를 받도록 형제를 계속 설득하려고, **예수**처럼 손 뻗는 것을 나타낸다. 기독교는 지금도 기꺼이 처음 십리를 가지만, 진정하게 십리를 더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시들고, 도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넘어진다 —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公言)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친 대로 정말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195:10.6 (2084.6) **예수**의 하늘나라 단체를 영적으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새롭고 변화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 부르는 소리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기쁨에 떨게 할 것이요,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예수**의 친구로서 땅에서 돌아다니던 시절 이후로 이처럼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195:10.7 (2084.7)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부인(否認)하는 어떤 사회 체계나 정치 체제도, 건설적이고 지속하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 문명이 진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자체가 더욱 진보하는 데 가장 큰 단일 장애물이 된다. 이것은 특히 동양의 경우에 참말이다.

195:10.8 (2084.8) 교회 중심주의는 당장에,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늘나라의 영적 관계에서, 사람의 형제 정신에 담긴, **예수**의 신앙 친구들의 생생한 믿음, 성장하는 정신, 직접 겪는 체험과 공존할 수 없다. 지난날에 이룬 업적의 전통을 간직하려는 칭찬할 만한 소망은 때때로, 낡아버린 예배 체계의 방어로 이끈다. 고대(古代)의 사상 체계를 돌보려는 좋은 뜻을 가진 소망은, 현대인의 확대되고 진보하는 지성의 영적 갈망을 채우도록 고안된, 새롭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기독교회는 진정한 복음 —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 — 을 즉시 진전시키는 길에 큰 장애가 되지만,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195:10.9 (2085.1)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기쁘게 충성하려는 열심 있는 많은 사람은, 그의 일생과 가르침의 정신을 너무나 조금 나타내는 교회를 열심히 지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깨달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런 교회를 세웠다고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예수**는 이른바 기독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성품과 일치되는 모든

면에서, 땅에서 일생에 그가 한 일의 대변자, 현존하는 최선의 대변자로서 교회를 육성해 왔다.

195:10.10 (2085.2) 기독교회가 오직 주의 계획을 감히 지지하려고 한다면, 무관심한 듯이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가 그러한 영적 사업에 지원하려고 앞으로 달려 나오고, 이 큰 모험을 서슴지 않고 끝까지 마칠 것이다.

195:10.11 (2085.3) 기독교는 자체의 표어(標語) 하나에 담겨 있는 운명과 심각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갈라져 서로 싸우는 집은 버틸 수 없다.” 비기독교 세계는 종파로 갈라진 기독교 세계에 도저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예수**는 가능한 기독교의 통일에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 — **예수**의 형제 정신 — 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꼭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조화의 특징을 가졌다. 획일성은 기계 성질을 가진 물리적 세계의 표시이다. 영적 조화는 살아 있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생기는 열매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형제 단체를 진전시키는 데 이제 더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 형제 단체는 제도가 되어 버린 사회 조직과 반대로,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될 운명을 가졌다. 이 단체는 그러한 사회 조직을 잘 이용해도 좋지만, 그것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195:10.12 (2085.4) 그러나 20세기의 기독교조차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종족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덕적 천재가 통합되어 생긴 산물이요, 참으로 땅에서 선(善)을 지지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였고, 따라서 타고난 결함과 얻은 결함이 있어도, 아무도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힘찬 도덕적 감정을 가진,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성을 움직이려고 아직도 궁리한다.

195:10.13 (2085.5) 그러나 교회가 상업(商業)과 정치에 말려드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연합은 주를 지독하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진심으로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태어난 종파의 숨통을 때때로 감히 틀어막고 어찌다 정통 아닌 옷을 걸친 듯이 보이는 진실의 사자(使者)들을 박해하려고 한 것을 잊기 어려울 것이다.

195:10.14 (2085.6) 그런 방식의 예배를 더 좋아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다면 그러한 교회가 살아남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참말이다. 영적으로 게으른 많은 사람이 의식과 신성한 전통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권위적 종교를 몹시 바란다. 모든 사람이 종교적 권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인간의 진화와 영적 진보가 도저히 충분하지 않다. 하늘나라의 보이지 않는 형제 단체는, 이 여러 가지 사회 및 기질 등급의 가족 집단이 참으로 영에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된다면, 그들을 포함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예수**의 형제 단체에는 종파의 경쟁도, 집단의 원한도, 도덕적으로 상위에 있고 영적으로 틀릴 수 없다는 주장(主張)도, 설 자리가 없다.

195:10.15 (2086.1) 기독교인의 이 여러 집단은 서양 문명의 민족들 사이에서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소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의 그러한 분열은 **예수**의 복음을 동양(東洋) 민족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제시한다. 이 민족들은 따로, 기독교와 얼마큼 떨어져서, 예수의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며, 기독교는 갈수록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었다.

195:10.16 (2086.2) **유란시아**의 큰 희망은 **예수**의 유익한 말씀을 새로 확대하여 발표함으로써 **예수**를 새로이 드러내는 가능성에 있으며, 그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수많은 집단을 사랑의 봉사로 영적 연합을 이룰 것이다.

195:10.17 (2086.3) 세속의 교육조차도, 그 교육이 어떻게 인생의 계획과 인격의 향상을 시작하는가 젊은이를 가르치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려 한다면, 이 큰 영적 부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인생 최대의 목적, 즉 훌륭하고 잘 균형된 인격의 발달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자아 만족 대신에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 종교는 필사인의 일생을 더 충만하고 보람 있게 만드는 데, 아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도 영적 자극을 줄지 모른다.

195:10.18 (2086.4) 기독교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종교이며, 따라서 저속(低速) 기어에서 작용해야 한다. 고속 기어의 영적 성과는 **예수**의 참 종교가 새로 드러나고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던 한 목수의 평범한 제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시작하여, 이것이 3백 년 안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고, 다음에 계속하여,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인들을 설득한 것을 보니, 기독교는 막강한 종교이다. 바로 이 기독교는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흐름 전체를 정복했다 — 흡수하고 향상시켰다. 다음에 신비교와 이교(異敎) 사상에 지나치게 젖은 결과로서, 1천 년이 넘도록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이 기독교는 스스로 살아나서 서양 세계 전체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복했다. 기독교는 충분히 **예수**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 자체의 불멸을 얻을 수 있다.

195:10.19 (2086.5)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더 깨달을 수 있기만 하다면, 현대인이 새롭고 더욱 복잡해지는 문제의 해결을 돕는 데 훨씬 더 이바지할 수 있다.

195:10.20 (2086.6) 기독교가 큰 장애를 겪는 것은 온 세상의 지성인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서양 문명의 사회 체계, 산업 생활, 도덕 기준의 일부라고 신분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뜻하지 않게

이상이 결여된 과학, 원칙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자제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양심(良心) 없는 권력, 도덕을 모르는 산업을 묵인한 죄책감 밑에서 비틀거리는 사회를 후원하는 듯이 보였다.

195:10.21 (2086.7) 현대 기독교의 희망은, 서양 문명의 사회 체계와 산업 정책의 후원을 그만두어야 하며, 한편 아주 용감히 찬양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거기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필사 인간이 일찍이 들을 수 있던 가장 큰 진실 — **하나님**은 아버지요 사람은 형제라는 산 복음 — 을 다시 배우는 데 있다.

[175]: 195:1.1 예전에 그리스인의 대법원 역할을 한 법정.

[176]: 195:6.7 자연주의는 우주가 목적이 없는 광대한 기계나 유기체요 인간사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론.

[177]: 195:8.1 비종교주의 또는 세속주의는 종교에 기대지 않고 인생과 윤리와 사물을 보자는 주의.

[178]: 195:10.5 마일은 약 1.6 킬로미터 또는 4리.
